

## 이주민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의 인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

이부영\* · 강운선\*\*

**요약** 이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들의 인식을 유형화하여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74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의 일반적 인식과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생들은 대체로 이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주민에 대한 인식유형은 '관념적 이주민 수용형', '이주민 수용 거부형', '실천적 이주민 수용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주요어** 이주민, 대학생 인식, 군집분석, 관념적 이주민 수용형, 이주민 수용 거부형, 실천적 이주민 수용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경제력의 확대와 더불어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는 다문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는 모두 156만 9,740명이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3.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주민의 규모가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인구보

\*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일반사회교육학, lby1004u@lycos.co.kr

\*\* 대구대, 일반사회교육학, wskang@daegu.ac.kr

다 많다.<sup>1</sup> 결혼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율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런 인구통계적인 변화에서 상당수의 결혼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개발도상국가에서 유입되었다는 사실과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민족과 인종의 주류집단이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온 경험 부족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회문제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자녀들을 차별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다문화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그 결과 2006년도 이후로 다문화교육은 급진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초중등학교 2007개정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이 교과교육이나 범교과교육 내용으로 선정되는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 중앙정부의 다문화교육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을 폭 넓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에서도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2007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경험하면서 중고등학교 시기를 보냈던 지금의 대학생들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

현재의 대학생들은 우리나라에 다문화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에 다문화교육을 이수하면서 중·고등학교 시기를 보냈다. 이처럼 현재의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다문화 교육을 접해본 세대라는 점에서 이전의 대학생들과는 차별적인 특성을 갖는다. 아울러 최근 대학생들의 국제 역량(international competency)이 중시되면서 대학교마다 학생들의 국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요즘의 대학생들

1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141,463명으로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각각 1,472,910명과 1,532,811명이다.

은 외국여행뿐만 아니라 어학연수, 외국교육봉사,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늘어남에 따라 다른 나라의 다문화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특징과 더불어 대학생들이 관련 분야의 예비전문가로서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해야 하는 대상이다. 대학생이 관련 분야의 예비전문가라는 점에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진단한 이후로 대학생들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다문화 구성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밝히려는 노력(김경호, 2013; 김지선·이근모, 2014; 인태정, 2009; 윤미선·조주연, 2012; 임도경·김창숙, 2011; 장임숙·이원일, 2011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런 노력을 통해 수도권, 호남 지역, 제주 지역, 충청지역, 경남지역의 대학생들의 인식수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비록 임도경과 김창숙(201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특정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보수성이 강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생들의 이주민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비록 임도경과 김창숙(2011)의 연구가 전국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졌으나,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분석한 연구로서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장임숙과 이원일(2011)이 부산 지역과 대구 지역의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경북 지역의 대학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 2. 대구·경북 지역의 다문화 현황과 선행연구 고찰

### 1) 대구·경북 지역의 다문화 현황<sup>2)</sup>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만5822명으로 2013년에 비해 6천700명이 감소했지만 대구광역시민의 외국인주민 비율은 2013년 1.3%보다 다소 증가한 1.4%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3년도 보다 361명 증가한 1천784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0.55%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전체 학생 수의 비율은 표 1과 같다.

그림 1과 같이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013년보다 5천601명 증가한 6만493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경북 지역 전체 주민의 외국인주민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표 2와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3년보다 809명이 증가한 4천221명이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1.36%이다. 이와 같이 대구·경북 지역도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일반적인 양상과 유사하게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초	중	고	계	전체학생수	비율(%)
2008	435	39	15	489	409,920	0.12
2009	574	58	23	655	398,723	0.16
2010	635	120	32	787	384,930	0.20
2011	782	188	45	1,015	368,376	0.27
2012	906	254	57	1,217	351,183	0.34
2013	1,072	256	95	1,423	334,369	0.42
2014	1,357	279	148	1,784	319,972	0.55

2 관련 통계자료는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자료와 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다문화시대의 학생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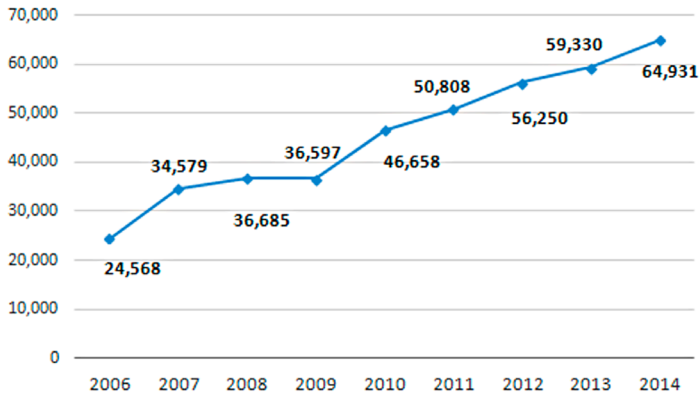


그림 1. 경상북도 외국인 주민 수

표 2. 경북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초	중	고	계	전체학생수	비율(%)
2008	1,157	117	34	1,308	384,298	0.34
2009	1,409	198	55	1,662	372,590	0.44
2010	1,498	267	77	1,842	359,488	0.51
2011	1,835	436	75	2,346	345,747	0.67
2012	2,028	582	160	2,770	332,449	0.83
2013	2,444	691	277	3,412	319,383	1.06
2014	3,127	717	377	4,221	308,753	1.36

## 2)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과 결정요인

다문화 수용성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적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는 태도부터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 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문화공존의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며 이주민에게 시민의 자격을 부여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려는 적극적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강운선, 2014).

임성택(2008)은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해 편견 없는 수용태도를 갖추는 것이 세계시민의 기본적 자질이라는 것을 전제하였다. 박혜숙과 원미순(2010)은 다문화 수용성을 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타문화에 대한 존중, 어려움에 처해있는 타인에 대해 그의 배경과 상관없이 원조하는 태도, 타문화인들에 대한 동료의식, 문화나 생활양식이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인종 간 공존을 지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 사회의 이상적 이 목표가 된다(정명희 외, 2014). 다문화 사회에서는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혈통을 중시하는 단일민족 정체성이 강하고 다문화 사회 또는 다문화주의의 역사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제도적 조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로의 점진적 이행을 위해서는 그만큼 더 다문화 수용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김경호, 2013). 다문화 수용성과 같은 태도형성은 비교적 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많은 환경적 요인들이 작용한다(임성택, 2008). 대표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낮은 집단일수록 더욱 강하여 다문화 교육과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력과 소득 변인이 다문화 수용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동기, 2010; 황정미, 2010; Bulbeck, 2004; Schalk-Soekar and Van de Vijver, 2008), 연령 변인도 다문화 수용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Ang et al., 2006; Van de Vijver, Breugelmans and Schalk-Soekar, 2008; Ward and Masgoret, 2008). 구체적으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문화 수용성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수용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이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Ward and Masgoret, 2008). 성별, 연령, 학력 변인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에서 학력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Van de Vijver, Breugelmans and Schalk-Soekar, 2008).

### 3) 한국 대학생의 다문화 의식에 관한 선행 연구

인태정(2009)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 및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민경(2010)은 서울, 경기,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행사나 다문화관련 기관에서 봉사경험이 있는 남녀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다문화 역량을 분석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동화를 전제로 한 다문화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해 다른 문화체험에 대한 폭넓은 시도와 지식습득 및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 변인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 수용성에 성별 차이가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성취도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친구 유무, 독서량, 학업성취도, 자원봉사 그리고 자기효능감도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 크기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는 달리 해외방문경험과 외국어 능숙도는 다문화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나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숙·원미순, 2010).

임도경과 김창숙(2011)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집단에 따라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서양 백인 선호 경향이 여전히 존재했으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포가 다문화 인식에 주요한 선행요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에 맞춰져있는 국내 다문화 정책의 방향이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 이주민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장임숙과 이원일(2011)은 부산 지역과 대구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의 수준을 측정하고,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

지 규명한 후, 다문화 인식이 정책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다문화 인식을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지,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지, 이주노동자의 송환지지, 민족적 거리감이라는 4가지 변수로 측정한 결과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은 보통 수준이며, 이주민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다소 배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남 등(2011)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과 자기효능감, 사회복지옹호태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옹호 태도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영과 최고야(2012)는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문화 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는 높았다.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연구(윤미선·조주연, 2012)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문화 다양성에 관한 인식 정도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다문화 가정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간호대생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수준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제미경 등(2008)의 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설계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자료는 서베이 몽키(Survey Monkey)라는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온라인 조사의 특성 상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대학생들로 설문

표 3.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명	%	구분		명	%
성별	남	355	47.5	단과 대학	인문대학	47	6.3
	여	392	52.5		법·행정대학	36	4.8
학년	1학년	119	16.0		경상대학	91	12.2
	2학년	181	24.3		사회과학대학	157	21.0
	3학년	195	26.1		자연과학대학	16	2.1
	4학년	251	33.6		공과·정통대학	154	20.6
해외 경험	무경험	502	67.2		생명환경대학	14	1.9
	10일 이내	99	13.3		조형예술대학	23	3.1
	10일~3개월	92	12.3		사범대학	184	24.6
	3~6개월	27	3.6		재활과학· 간호보건학부	25	3.3
	1년 이상	27	3.6		의과대학	0	0
					다문화 가족	예	17
아니오					730	87.6	
다문화 친족					예	93	12.4
아니오	654	87.6					

여하였으나,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생들이 응답한 설문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전자우편(E-mail)을 활용한 온라인조사와 오프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설문자료는 총 785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설문지와 연구대상으로 부적합한 설문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4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성별, 학년, 단과대학, 해외경험, 다문화 가족유무, 다문화 친척 유무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 2) 측정도구

이주민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주민들의 인식을 분석한 선행연구(김민경, 2010;

염미경, 2013; 인태정, 2009; 임도경·김창숙, 2011 등)에서 활용한 설문문항을 분석하여 재구성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들을 주 성분 분석방식을 적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모든 항목이 공통성 지수가 .5이상으로 산출되었다. 추출된 한 요인의 설명력은 61.87%이며, 추출된 문항을 대상으로 내적일치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의 알파 값은 0.87로 신뢰도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과 자료처리 기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Ver.2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태도의 항목별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술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활용하였다.

군집분석은 소비자와 상품과 같은 대상을 그것이 소유하는 특성을 토대로 유사한 대상끼리 집단화하는 다변량 통계기법이다. 군집분석을 실시할 경우 군집내의 구성원들은 가급적 유사하게 군집들 간에는 가급적 상이하게 대상을 집단화한다.<sup>3</sup> 군집분석을 통하여 군집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계층적 군집화 방법과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이 있다. 사례수가 많을 경우에는 계층적 군집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계층적 방법에 속하는 K-means 군집방법을 활용하였다.

3 자료의 구조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요인분석에 비유될 수 있으나, 요인분석은 변수들을 묶는 반면, 군집분석은 대상을 묶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아울러 대상을 분류한다는 점에서 판별분석과 유사성을 가질수도 있으나, 판별분석은 분석 이전에 집단이 이미 나누어져 있으며 집단간의 차별적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를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군집분석은 사전에 집단이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여러 변수에 걸쳐 유사한 대상끼리 집단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 4. 분석결과

### 1)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기술분석

#### (1)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경향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항목별 평균값은 이주민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함(2.99), 이주민이 증가할수록 국가 경쟁력이 도움이 될 수 있음(2.84), 이주민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 동참(2.66), 이주민들과 있어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음(2.52), 문화 공존과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음(2.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긍정의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공존과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항목에 대한 평균이 2점을 상회한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다문화교육의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2) 인구통계변인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수용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인구

표 4. 이주민 인식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항목	M	SD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28	0.70
다른 인종, 민족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2.99	0.76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2.28	0.70
우리나라의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84	0.81
이주민들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 동참할 것이다.	2.66	0.82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사람들과 있어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다.	2.52	0.83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역코딩

표 5. 성별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항목	성별	M	F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남	2.68	4.16*
	여	2.56	
다른 인종, 민족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남	3.10	16.14***
	여	3.11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남	3.03	22.82***
	여	2.97	
우리나라의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남	3.03	0.31
	여	2.87	
이주민들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 동참할 것이다.	남	2.92	13.13***
	여	2.97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사람들과 있어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다.	남	2.82	4.62*
	여	2.71	

\* p&lt;.05 \*\*\*p &lt;.001

통계변인 중에서 성별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이 항목별로 성별에 따른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 항목과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사람들과 있어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다는 항목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인종, 민족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 동참할 것이다 등의 항목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2)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유형 분석

### (1) 이주민에 대한 인식 유형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 문항을 표준화한 후에 군집 수를 2부터

한 단위씩 늘리면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행 과정에서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군집별 집단의 사례 비율, 그리고 집단의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군집 1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공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다문화 사회 현상으로의 변화를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인식할 경우에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집단이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관념적 이주민 수용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공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이

표 6. 이주민 수용성 유형

	군집			F
	군집1	군집2	군집3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0.09	-1.06	0.35	139.82*
우리나라의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0.23	-1.42	0.41	345.01*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0.07	0.22	-0.13	6.96**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사람들과 있어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다.	-0.97	-0.34	0.72	471.47*
다른 인종, 민족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0.22	-0.53	0.34	52.76*
이주민들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 동참할 것이다.	-0.16	-0.64	0.34	60.24*
	관념적 이주민 수용형 (30.5%)	이주민 수용 거부형 (19.3%)	실천적 이주민 수용형 (50.2%)	

\*p<.05 \*\*p<.01

런 특성을 반영하여 ‘이주민 수용 거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공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을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특성을 갖는 집단이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적 이주민 수용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 (2) 성별 따른 인식 유형의 차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주민 수용성 유형에 속하는 분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과 같이 분포 항(cell)의 기대 빈도가 5를 초과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관념적 이주민 수용형에 속하는 비율은 27%, 이주민 수용 거부형은 17.2%, 그리고 실천적 이주민 수용형에는 55.8%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은 관념적 이주민 수용형에 속하는 비율은 33.5%, 이주민 수용 거부형은 21.2%, 그리고 실천적 이주민 수용형에는 45.3%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천적 이주민 수용형에 속하는

표 7. 성별 따른 이주민 수용성 유형의 차이

구분		남학생	여학생
관념적 이주민 수용형	관측 빈도(명)	91	128
	기대 빈도(명)	102.6	116.4
	백분율(%)	27.0	33.5
이주민 수용 거부형	관측 빈도(명)	58	81
	기대 빈도(명)	65.2	73.8
	백분율(%)	17.2	21.2
실천적 이주민 수용형	관측 빈도(명)	188	173
	기대 빈도(명)	169.2	191.8
	백분율(%)	55.8	45.3

$\chi^2$ : 7.90 df: 2 Sig.: .02

비율이 10% 정도 높은 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주민 수용 거부형에 속하는 비율은 5%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결과에 근거할 때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주민들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별이 다문화 수용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던 선행연구(윤인진·송영호, 2011; Ekehammar & Akrami, 2003; Sidanius & Pratto, 1999; Van de Vijver, Breugelmans & Schalk-Soekar, 2008)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 5. 제언

이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들의 인식을 유형화를 하여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74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생의 이주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분석하고, 군집 분석을 활용하여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들은 ‘이주민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수용’이나 ‘이주민이 받는 부당한 대우나 차별의 개선을 위한 실천’ 등 긍정 항목의 평균이 ‘문화 공존과 이주민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음’ 등의 부정 항목에 대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이주민 수용성에 대한 태도 유형은 ‘관념적 이주민 수용형’, ‘이주민 수용 거부형’, ‘실천적 이주민 수용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실천적 이주민 수용형’에 속하는 비율은 과반을 넘었으며, ‘이주민 수용 거부형’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이주민 수용성 유형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실천적 이주민 수용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다문화교육에서 갖는 의의와 앞으로 보완할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들의 이주민의 수용성 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민 수용성 정도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이 갖는 인식의 유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연구 영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의와 더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갖는다. 우선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를 하지 않은 채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인식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가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의 인식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대학생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보완한 연구가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생들의 인식을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 다문화경험 접촉 정도, 소득, 그리고 다문화교육정도 등의 변인에 따른 인식 유형의 차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다문화 수용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이주민 수용성 유형에 미치는 차이나 영향의 정도를 밝힌다면 다문화교육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보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운선, 2014, 고등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 유형이 다문화 수용성 태도 유형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대구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교육, 53(3), 31-49.
- 강혜정, 2012, 대학생용 다문화태도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3(4), 35-57.
- 김경호, 2013,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문화간 감수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교육, 22, 77-104.
- 박윤경, 2007, 다문화 접촉 경험의 교육적 의미 이해, 초등예비교사들의 문화 다양성 관련 변화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9(3), 147-183.
- 박혜숙·원미순, 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303-325.
- 서지영, 최교야, 2012,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다문화건강학회지, 2(1), 25-32.
- 안정행정부, [www.mogaha.go.kr](http://www.mogaha.go.kr)
- 양정남·최은정·문란영·박건영·박순희, 2011, 자기효능감, 사회복지용호태도가 사회복지 전공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 16, 24-47.
- 염미경, 2012, 대학 다문화교육과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이해 관련 교양 강좌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2(1), 211-233.
- 윤미선·조주연, 2012,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가정과 문화 다양성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간호과학회, 2(2), 27-33.
-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 인태정, 2009,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연구, 국제지역연구, 13(2), 339-370.
- 임도경·김창숙, 2011,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9(1), 5-34.
- 임성택, 2008, 다문화 교육의 맥락에서 한국 학생들의 국제교류 수용도 분석, 비교교육연구, 18(2), 1-20.
- 장영진·구혜영, 2013, 농촌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구조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3), 193-216.
- 장임숙·이원일, 2011,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이주민권 정책에 대한 태도, 지방정부연구, 15(4), 177-199.
- 정명희·이주희, 2014, 대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이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지, 427-44.

- 제미경·전영자·전예화, 2008, 대학생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177-178.
- 조동기, 2010,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시민권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33(3), 53-73.
- 조화성, 2011, 한국 대학생의 다문화 의식 현황과 다문화교육 발전방향, 민족연구, 47, 25-43.
- 한국교육개발원, kess,kedi.re.kr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152-184.
- Ang, Ien, Jeffrey E. Brand, Greg Noble, and Jason Sternberg, 2006, Connecting Diversity: Paradoxes of Multicultural Australia, Special Broadcasting Services. [http://epublications.bond.edu.au/hss\\_pubs/20](http://epublications.bond.edu.au/hss_pubs/20).
- Bulbeck, Chilla, 2004, The "white worrier" in South Australia: Attitudes to multiculturalism, immigration and reconciliation, *Journal of Sociology*, 40, 341-361.
- Ekehammar, Bo and Akrami, Nazarn, 2003,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and prejudice: A variable- and a person-centered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 449-464.
- Koopmans, Ruud, and Veit, Susanne, 2014, Ethnic diversity, trust, and the mediating role of positive and negative interethnic contact: A priming experiment, *Social Science Research*, 47, 91-107.
- Schalk-Soekar, Saskia R. G. and Van de Vijver, Fons J.R. 2008,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A study among Dutch majority membe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 2152-2178.
- Sidanius, Jim & Pratto, Felicia, (Eds.), 1999,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e Vijver, Fons J. R., Seger M. Breugelmanns and Saskia R. G. Schalk-Soekar, 2008, Multiculturalism: Construct validity and st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2, 93-104.
- Ward, Colleen, and Masgoret, Anne-Marie, 2008,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in New Zealand: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2(1), 227-248.

## **Cluster Analysis of Perception toward Immigrant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and Kyungsangbuk-do Area**

Bu-Yeong Lee\* · Woon-Sun Kang\*\*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general tendencies towards immigrant among college students in Daegu and Gyeongbuk area, and to identify typed of perception toward immigrant among college students in Daegu and Gyeongbuk are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747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and Gyeongbuk area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The cluster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ypes of immigrant.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college students had positive perceptions about immigrant. Secondly, perception toward immigrant could be classified into ‘ideological immigrant acceptance type’, ‘immigrant acceptance rejection type’ and ‘practical immigrant acceptance type’.

**Keywords** Perception on Immigrant, Cluster Analysis, Ideological Immigrant Acceptance Type, Immigrant Acceptance Rejection Type, Practical Immigrant Acceptance Type

---

\* Daeg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 Course, Social Studies Education, lby1004u@lycos.co.kr

\*\* Daegu University, Professor, Social Studies Education, wskang@daegu.ac.kr